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6년도 제17차 회의

1. 일 시 2006년 8월 17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재)
강 문 수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이 성 남 위 원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사 박 재 환 부총재보
김 수 명 부총재보 이 영 균 부총재보
윤 한 근 부총재보 김 병 화 부총재보
정 해 왕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이 주 열 정책기획국장 장 병 화 금융시장국장
정 이 모 금융통화위원회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32호 — 2007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설정>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된 「2007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대부분의 위원들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목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국민 또는 언론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또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예상치 못한 국내외 경제충격 및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가목표를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물가목표의 재설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물가안정목표의 하한을 설정한 의미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통화정책 수행시 성장과 물가의 적절한 조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일반적으로 물가가 목표하한에 접근하거나 하한을 벗어났을 때에는 금융완화 시그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실제 정책으로의 반영여부는 당시의 제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금통위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2007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설정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큰 틀과 통화정책 수행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효과에 더해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의지를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음

동 위원은 중기 물가안정목표 설정기간중 근원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격차 전망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2007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에는 포함되고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제외되는 석유, 곡물제외 농산물 등 공급측면에서의 상승 요인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 두 지표간 격차가 이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상지표가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소비자물가로 변경되는 배경 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과거에 비해 통화수요가 불안정해졌지만 통화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통화량이 실물경제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불안정해졌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량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중이라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07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함

☐ 2007~2009년중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3.0 \pm 0.5\%$ 로 함

○ 물가목표의 달성여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기준)의 3년 평균으로 판단

☐ 통화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이번 물가목표의 적용기간이 종료(2009년말) 되기 이전에 다음 물가목표 설정

☐ 예상치 못한 국내외 경제충격,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가목표를 재설정